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기획인: 권외지> ● 본보국: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19호

서기 2001년 5월 23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자기 중심 바퀴축에 의지해 살라

### 여여하게 살아가려면...

**문** 어떻게 하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여여하게 살아가 수 있는지요?

**답**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그냥 풀 흘러가듯 하고, 뜬 구름 흩어지듯 하고 그래서 '고(苦)가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잡고서 내가 이것이 어머니 저것이 어머니 할 것이 있겠습니까? 구름을 잡는 것과 같고 물 한 잔 먹 잡는 것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생각으로 고에서 허덕인다고 해야 합니까. 한 생각이 능숙하고 지혜롭다면 뛰어넘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흠을 털고 살아갈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화해서 지나가 버리고, 자기조차도 몸 안에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으면서 공해서 돌아가고, 바깥에서도 공해서 돌아가고, 나와 더불어 같이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는데 거기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고가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업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즐거움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배우가 영화를 찍어서 영화가 막이 내리면 말았던 배역도 끝나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다만 오직 자기의 중심인 심봉을 의지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에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 그렇게 인생살이가 돌아가는 것이니 가운데 중심을 쥐고, 즉 말하자면 바퀴가 돌아가듯이 심봉을 쥐는다면, 심봉은 끄떡도 안하고 힘만 배출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바로 찾고서 돌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못하고 잘하고, 여자고 남자가, 낮고 높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을 다 떠나서, 오직 내 심봉을 딱 쥐고서 그대로 흘러가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심봉을 의지한다면 바퀴가 이탈되지 않으니깐요. 심봉이라는 건 반아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주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근본체를 의지하면서 오직 힘이 없이 하면서 돌아간다면 여러 분이 한 찰나에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여하게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겁니다.

### 성불의 진정한 뜻 무엇인지요

**문**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초심자입니다. 절에 다니시는 모든 불자들이 항상 합장인사를 하며 '성불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성불의 진정한 뜻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성불이 목표라면 어떠한 공부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 자기 마음의 능력을 자기 스스로 기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닦혔을 때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아무리 해결 해달라고 빌어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신 똥주어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신 먹어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신 아파 주고, 대신 죽여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어느 때 깨달은 스님이 계셨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스님 같이 깨우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 상 들어오너라" 하고 시자에게 일러서 겸상을 차려 오게 해놓고 동생의 밥과 반찬을 모조리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너 배부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아, 오라버니가 다 집수었는데 제 배가 어떻게 부르니까?"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다. 네가 하지 않는 일을 어찌 내가 해줄 수 있겠느냐? 다른 것은 대신해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만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듯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말로 일러줄 수도 없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스스로 내 안의 뿌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결론도 알고,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내 안에 믿고 맡기면서 하나하나 체험해서 알아 가야 하는 것이지, 그걸 말로 알려 주어서 성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있고 생활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모두가 공해서 돌아가면서 수 없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것이 하나로 돌

다." 하니까 은사스님께서 "너 혼자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야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선뜻 대답하시고 나서 "너 혼자 하려면 첫째, 오장육부에 있는 생명들을 다 깨내놓고 두 번 깨, 남이 짠 옷감이나 입지 말아야 하고 세 번 깨, 남이 농사를 지은 거나 먹지도 말아야 하고 네 번 깨, 네 것이 아니니까 땅을 밟지도 말아야 하고 또 물을 마시지도 말아야 하고 불도 쓰지 말아야 하고, 바람도 쐬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게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거니까 절대로 나무도 베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재주가 있으면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너 아침 공양했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냥 무릎을 치면서 '하! 정말 내 몸 속에도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모두 복잡하다고만 했구나.' 하는 생각에서 참회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너 아침 공양했느냐."하고 물으니까 "식기 뒤였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하면 벌레 밥 먹고 지나갔습니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지나간 것을 물으니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

### 현재 내가 생각·말·행동 잘 하는 대로 내일 일 주어지니 비참하고 가난하고 고통속에 헤맬지라도 금지 잊지말라

아가면서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성불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성불이라는 것도 이름해서 성불이지,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어찌 성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가리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하고 말로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성불을 뒤집으면 불성이 되듯이 불성이 본래 모두에게 있기에 누구나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든 다 제쳐놓고 내 안의 에너지 주장자를 진짜로 믿어서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 마음의 도리를 꼭 배워야 합니다.

### 수행의 끝 어디입니까

**문** 수행의 끝은 무엇으로 증명 할 수 있습니까?

**답**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 서는 행선이요, 누워서 하면 와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앉으면 좌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는 것도 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쉼 없이 돌아가는 때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대로 따라서, 바쁘게 생각 할 것도 없고 게으르게 생각 할 것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상황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제자가 은사스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시끄럽고 복잡해서 산에 올라가서 도구를 짓고 공부하겠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직 포착이 안 됐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열 마음의 차이도 붙지 않고 나오게 되겠죠.

그런 거와 같이 여러번 생활 속에서 '내 몸도 지구와 같이 모든 생명들을 한 데 모아서 살고 있구나.' 하고서 생각을 깊어지고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다스리는 그 주인공이 수억억을 거치면서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어 왔으니 바로 나의 주인이로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실행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뜻

**문** 스님 은혜에 감사 드리며 공부중 인 불자입니다. 일전에 스님께 아이와 저 자신의 문제로 큰의를 드렸을 때 스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돌 아닌 주인공에 놓고 관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유산을 주장하던 집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돌려 지금은 생후 일 개월이 된 건강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헤매기만 하면 제 자신의 마음이, 혼란한 중에도 항상 관하려는 자세를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말에도 시간을 내지 못하여 따로 시간을 갖고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걸려나 않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마음을 관하는 것으로 공부를 대신 합니다. 좋은 글들은 따로 적어 지니고 다니며 틈틈이 열어 봅니다. 얼마 전 5조와 6조 스님의 대보 중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을 접하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고 뭔가 아련하긴 한데 답답함만 가득하여 다시 스님께 가르침의 말씀 청하오니.



그림 · 최주현

**답** 마음은 머물지도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한마음으로 쉼 없이 쉼 없이 쉼 없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당신도 지금 머무는 바 없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어요. 고정점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고 있던 말입니다. 짙어지고 온 것도 없고 짙어지고 갈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바 없이 지금 머물고, 머무는 바 없이 또 머물고 이렇게 하니까 머무는 바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었습니까. 공해서 돌아가니까 머무는 바 없이 돌아가고 하죠. 그렇게 머무는 바 없이 돌아가고 하죠. 자가 발전소부터 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부터 알면 날더러 물을 필요도 없이 자기 한 손가락에 우주 삼라대천세계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으면서 행하는 도리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도 가질 게 없다는 것을 내 어찌 알았으랴, 또 일체 만법을 들고 내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내가 참이라는 것을, 참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으랴, 모든 것을 내가 구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으랴, 이런 뜻으로써 한데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내기 이전은 내 마음의 선 장이고, 선장으로 삼고, 마음 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물욕 놓을 수만 있다면, 물욕 놓되 그냥 물욕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깨(靈)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나 나는 그렇

게 가르치면 더더구나 아예,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체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세심스럽게 거치고 거처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러 이 소리입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 생각 내기 이전에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시원한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일체 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이다'라고 선봉가에 있죠? 일체 제불의 법이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일체 제불의 몸은 일체 중생의 몸이다. 일체 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 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 하는 것도 다 내 한마음에 있다고 노래에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확실히 해나가시면 다 알게 될 겁니다.

### 놓으면 노력 안해도 됩니다

**문** 주인공에게 맡기고 놓으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같은 것입니까? 그런 자신감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본래의 나는 수억 년의 세상을 살아왔고 우주의 모든 것들과 닿아 있으니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만을 절대로 믿고 있다면 노력 없이도 모든 일

이 뜻대로 될 것도 같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될 것이다' 하고 마음 폭 놓고 있는 것과 '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부단히 노력한다면 될 것이다' 중 무엇이 옳은 것 인지요? 또,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요즘을 제가 힘들어하는 학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자주 남들과 저를 비교하며 남들을 시기하고 있지만 정작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실제로 열심히 해지지 않습니다. 막연히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속은 텅 비고 껍데기만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이 마음공부라는 것은 너무나 철두철미해서 아니하고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저께가 과거고 조금 전이 과거고, 이 시간 후가 미래고 내일이 미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생각을 잘하는 대로, 행동을 잘하는 대로, 말을 잘하는 대로 내일 일이 주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 속에서 헤매다 하더라도 그 금지만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맛들의 심봉을 제대로 쫓지 않았으면 물건을 놓고 갈아도 제대로 갈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방향이 딴 데로 틀어집니다. 마구 그냥 쏟아집니다. 그와 같습니다. 똑바로 끼워야죠. 똑바로 심봉이 끼워져야 제대로 갈아지며, 전기와 전깃줄이 한데 제대로 이어져야 불이 들어옵니다.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듯이,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철저히 믿어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딴 데로 나가는 거는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마음 내기 이전의 내 마음 선장이 올바르게 투사될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는 생각이, 욕심껏 그렇게 나가는 생각이 80%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3%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니까 그리로 돌아가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두지 말고 진짜 크게 먹으려면 진짜 뿌리에서 그 싹을 전체 살리고 싶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고 다 맡기고 심부름꾼으로만 사세요. 시자요 관리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관리인입니다. 심부름꾼이고! 따지고 보면 속의 생명들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또 전체 몸통의 심부름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 또한 들어야 하죠. 그러나 마음 쓰기에 달려있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이 몸통이 속의 모든 의식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규정적으로 돼 있는 그 의식들이 바로 화해서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주게 해야 업보, 인과, 우전성, 영계성, 세균성이 모두가 무너져서 내 마음을 하나로 돌아가게끔 돼 왜야 이게 딴 데로 흘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그 자체의 근본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물러서서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그런 말씀드리죠. 맛들을 심봉을 꼭 끼워 놓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면 다 갈려서 나오듯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거기 들어가서 갈려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어떠한 것이든 지다 재성이 돼서 나오구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불바퀴와도 같고 용광로와도 같고 또는 자가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돼서 돌아가고 있

20면으로 계속

가끔은 안목을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이시아출판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